

음악교육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초등학교 저학년의 ‘즐거운 생활’

Reality of ‘Enjoyable Lif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a Historical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주대창*

Dae Chang Ju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 교과 대신 ‘즐거운 생활’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음악교육의 발달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즐거운 생활’에서 내세우는 통합적 접근이 음악교육의 전통과 만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어서 역대 교육과정에 나타난 ‘즐거운 생활’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여 이 통합 교과와 음악 교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공자나 플라톤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의 음악이 지닌 의미에 따라 포괄적 음악교육이 언급되었다. 이후 기독교 문화에서는 학생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음악교육이 중용되었다. 그러나 루소 또는 페스탈로치의 음악교육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학생의 미적 감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이 오늘날의 초등 음악 교과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갑자기 나타나 차츰 별도의 교과로 입지를 굳힌 ‘즐거운 생활’은 학생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음악 교과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 정당성이 약하고, 통합적 접근의 예술교육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를 복원하고 그 안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통합적 접근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통합 교과, 음악 교과, 즐거운 생활, 초등음악교육, 음악교육의 역사

Abstract This research proceeds from posing a question whether the ‘enjoyable life’ in Korea is justified from a vantage point of music education. The writer highlights historical contexts between the general school music class and the ‘enjoyable life’ as an integrated subject. And then, the curricular for the ‘enjoyable life’ are analytically examined for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class and the ‘enjoyable life’. In ancient times, a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was recommended as it is shown in works of Confucius or Plato. Music was also a significant subject matter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Christian culture where singing hymns established an educational tradition as a process of socialization. However an aesthetic and humanistic approach, for example by Rousseau or Pestalozzi, is regarded as the cornerstone of modern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 ‘enjoyable life’ in Korea emerged in 1980s which seemingly succeed to traditional music class, and eventually claimed an independent subject, but from the perspective that music curricula can lead holistic development in children, it has been unsuitable for integrative education. Thus, the writer proposes to restore the music class instead of ‘enjoyable life’ in elementary school and to enhance teaching methods for integrated music education.

Key words: integrated subject, music class, enjoyable life, elementary music education, history of mu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dcju@gne.ac.kr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ilmundaero 55, Bukgu, Gwangju, Korea

Received: 29 February 2024, Reviewed (Revised): 27 March (1 April) 2024, Accepted: 18 April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어린이 음악교육은 공교육의 전통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음악 교과가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음악 교과를 운영하는 국가 중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국식 통합 교과를 시도하는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은, 1980년대에 한국에서 통합 교과가 제안된 맥락이나 배경이 무엇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만이 지닌 교육 환경 또는 정치·사회적 여건이 있었는지는 더 알아보아야 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음악 교과가 도입될 때 초등학교 저학년을 배제하지는 않았다(Ministry of Education, 1906, clause 9). 이는 체계적 음악교육으로 음악적 성장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음악 교과의 교육적 함의를 담아내는 학문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 교과의 역사가 단절되고 교육적 기여가 제한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 교과를 복원하자는 주장과 통합 교과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은 교육 의도에서 서로 충돌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을 통합적 관점에서 즐기게 할 것인가와, 교과 내용의 조직적 학습으로 창조적 성장을 이끌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인다.

이 문제는, 사실은, 방법과 내용의 문제에 속한다. 즐기기는 학습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름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 즐기기도 그것을 위한 놀이라는 방법적 접근이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과 내용이 충족될 수 없음은,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 및 그것의 구현을 안내하는 교과서에도 다양한 지도 내용이 존재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가르칠 것인가의 논의 결과로 교과가 존재해 왔는데, 교육 방법이 내용을 통제하여 별도의 교과가 되어버리면 그 교과의 내용 조직은 엉성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탐구하기, 숙고하기, 이해하기 등을 촉진해야 할 활동조차 현재의 즐기기에 초점을 두며 따라 미적 감성의 정장을 의도하는 음악 교과의 본래 과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공교육의 책무를 고려하면 즐기기도 지향의 방법적 배려만으로 미래 사회를 맞이할 학생의 역량을 함양시키겠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체계성을 강조하는 공교육에 현재만, 또는 즐기기도만 내세우면 될 정도로 단순한 교과는 없다. 다양한 층위의 지도 요소들이 방법과 함께 얹혀 있고, 무엇보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즐기기도 중심의 활동이 학생이나 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해야 한다.

한편, 음악을 즐기게 하는 것과 놀이 방식으로 음악적 내용을 소화하는 것은 음악 교과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는 활동 방식이다. 이것들은 음악 교과의 전통에서 줄곧 중용되어 온 사항으로서, 통합 교과가 음악 교과를 대신해야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없다. 또한 현대로 오면서 음악 교과 교육이 포괄적 교육의 한 방식으로 주변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대해 온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음악의 역할 및 작용에 근거한 포괄적 지도는 음악 외적 사항을 우선하는 ‘즐거운 생활’ 교과의 통합 방식보다 더 융합적이다.

이러한 점을 알아보는 데는 역사적 접근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정에서, 통합 교과의 도입과 그것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의 학교 교육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 설정된다. 첫째, 음악교육의 시원은 무엇인가? 학교 음악교육의 전통을 구축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 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교육의 역사에서 통합적 접근의 흔적이 있는가? 한국의 통합 교과에서는 음악을 다른 활동들과 엮어서 다루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 교과 ‘즐거운 생활’의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생활’은 자체의 내용 구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음악적 내용이 그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명목상 ‘즐거운 생활’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를 대체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음악교육의 시원

1. 시대 관통의 관점

음악이 인간 교육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가운데 인류 지성의 정점에 있는 사상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그 함의를 잃지 않는다. 그것은 세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들이 인간 삶의 전체를 설계하면서 음악교육을 떠올린 구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의 공자(孔子, BC 551-479)와 서양의 플라톤(Plato, BC 428/427 또는 424/423-348)이 주목을 받는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에서 행동의 기준을 세우며, 악에서 성정을 이루어야”(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한다(Confucius, 2020, pp. 96-97). 공자 이후 교화의 관점에서 악(樂)은 사회 질서를 대표하는 예(禮)와 연계되어 서로 보완하는 예악론(禮

樂論)의 한 축이 된다. 그래서 예로 분별과 절제를, 음악으로 본성과 표현을 일구어내는 구도가 자리 잡는다(Anonymous, 2021, pp. 37, 43).

플라톤의 견해에 의하면 “리듬과 곡조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영혼 깊숙이 관여하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우아한 품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Plato, 2000, 401e-402a). 그래서 어린 시기부터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 교육에서 음악이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품성을 돌보는 것이 신체를 돌보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Plato, 2000, 403c-403d).

공자나 플라톤 이전부터 음악은 문명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 체제와 연계하여 교육 수단으로 언급한 점이 돋보인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서양의 음악교육 전통이나 동양의 예악론도 보편적 사유가 전제되지 못했다면 존중받는 주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Jo, 2013, p. 42). 다시 말하면 음악이 인간에게 교육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초등 교육에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돌출적 아이디어에 의한 특수한 주장이 아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음악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므로 과거의 전통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 교과가 없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사상은 예와 악으로 나뉘 교육적 처방을 내리고 있다. 예는 분별 및 절제를 중시하므로 사회적 체제, 즉 공동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악은 본성과 표현에 치중한다. 만약 어린 학생의 교육에서 음악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통합적 사회 활동에 준하여 다룬다면 그것은 예만 내세우고 악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음악적 표현 욕구의 정제를 전제하지 않은 예악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의 예악론은 음악 현상에 대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는, 바람직한 음악 향유 능력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음악의 미적인 면을 수용하는 감성 역량이다. 논어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곧 어진 성품으로서 인(仁)에 해당한다(Kim, 2001, p. 229). 이 견해가 인을 우선하기 위하여 교육에서 예나 악을 뒤로 미루라는 이야기로 바뀔 수는 없다. 실제 음악을 접하면서 인을 함양하여야 하고, 그렇게 갖춰진 인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플라톤이 살던 고대 그리스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에서 음악 학습은 이른 나이의 학생에게 부과되었다. 이 현상은 품성 교육의 필요성과 발달 단계, 그리고 교육의 과정(過程)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만약 학생이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음악을 가르치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발달 단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예술을 즐기는 일은 평생 이루어지지만, 그것의 학습은 이른 나이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학생이 판단할 수 있으려면 연주해 보는 것도 필요하

로 그러한 실제 활동을 되도록 이른 나이에 시작하여야 한다(Aristotle, 1885, 1340b).

2. 음악의 통합적 성격

음악 교과는 당연히 음악적 사항을 주요 활동 소재로 한다. 교육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든 그 주된 소재가 음악이어야 음악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음악의 발달에서 순수 기악을 염두에 둔 작품 개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그 이전에는 악기 연주가 춤이나 의식의 반주용으로 기능하거나 성악 음악의 동행 또는 대행의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으로 널리 소통되는 대부분 음악은 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맥락은 처음부터 음악이 언어와 결부됐음을 말해준다.

음악이 근현대 학교의 교과로 부과되는 과정을 되새김질해 보면 처음에 언어 교육과 같이 구체적 기능성을 우선하다가 점차 인격 존중의 예술적 활동으로 자리 잡아간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이 예술의 주요 분야가 되면서, 그리고 예술의 미적 성격이 우선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예술 개념이 없거나 예술의 가치가 포괄적 인간 교육과 연결되지 못할 때 음악은 사회적 기능 교과를 벗어나기 어렵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성악이든 기악이든 고대부터 음악은 물리적 음향조직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악과 시, 그리고 춤이 결부된 형태의 종합 문화물이었다. 플라톤이 자주 “음악적 그리고 시적 교육”(musical and poetic education), “리듬과 음조”(rhythm and mode)를 묶어 언급한 것은(Platon, 2000, 401d-401e)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상응하는 포괄적 음악을 떠올리게 한다. 공자가 종묘의 팔일무(八佾舞)와 노래 가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현악기로 반주하는 노래에 대한 평을 한 것을 보면 그 역시 단순한 소리로서의 음악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Confucius, 2020, pp. 29, 221). 이후 예와 음악의 상보적 교화 작용을 강화한 예악론에서는 아예 성(聲)·음(音)·악(樂)을 구별하고 음악에 춤을 곁들인 것은 악이라 칭한다(Anonymous, 2021, p. 23).

학교 음악 교과의 설정에서 포괄적 예술로서의 음악은 고상한 문화물을 대표하는 위상으로 인해 긍정적 조명을 받는다. 과거의 악(樂)이 오늘날의 음악과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나, 현대어의 음악은 과거의 악(樂)과 절연한 상태가 아니다. 서양의 음악(music)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음악이라는 문화물 자체가 이미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맥락의 파악을 위해 다음 장에서 보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이 정착되는 주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보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

1. 종교 관점의 위상 강화

서양에서 학교 음악교육의 단면을 나타내는 공동체 추구는 기독교 사회의 특성에 따라 종교 생활과 연계된다. 일반인이 해독할 수 있는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교회 음악 역시 일반 회중의 노래로 자리 잡는다. 그러한 움직임의 선두에 있던 루터(M. Luther, 1483-1546)는 종교와 음악,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학교를 연대시켜 찬송하는 공동체를 일구고자 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음악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신의 선물이다.
- 영혼을 고상하게 만든다.
- 악(惡)을 몰아낸다.
- 순결한 즐거움을 일깨워 준다. (Luther, 1909, p. 696)

그러하기에 루터는 음악을 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음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학교 교사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 음악은 학교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훈화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와 음악을 배워야 한다. (Ehrenforth, 2005, p. 215)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음악이 해당 사회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의 작용이 설득력을 지닐 정도로 현저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는 해당 사회의 음악 향유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고대 문명사회에서 음악의 교육적 활용을 논할 때 음악이 시가(詩歌) 및 춤과 묶여 언급된 것은 당시에 그것을 누리는 문화가 그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사회에서 음악이 학교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과로 논의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당시의 음악이 다른 예술 분야보다 그 효용성에서 더 큰 시선을 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이켜보면 읽기와 쓰기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익히는 분야 외에 음악보다 먼저 교과로 논의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것은 음악의 교육적 기여 가능성을 드러내는 면이며, 동시에 음악이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는 분야라는 말도 된다.

플라톤이나 공자가 음악교육으로 이루고자 했던 바는 통치 체제의 공고화, 즉 양질의

지배층 교육이었다. 즉, 정치적 이유가 가장 컸다는 이야기이다. 이 흐름은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으로 바뀌 나타났고, 앞에서 살펴본 루터의 견해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코메니우스 역시 찬송을 음악교육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보았다(Comenius, 1960, p. 318). 서양에서 이러한 기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교육이 종교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한 근간이 되었다.

2. 인본주의 관점의 숙성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음악교육에 기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대 사회의 지배층 교육에서 기독교 사회의 찬송 교육을 이어, 인간 교육의 한 방편으로 음악교육이 논의되었다. 음악을 통한 인간 교육에 대한 견해는 자연주의 또는 박애주의를 표방하는 루소(J.-J. Rousseau, 1712-1778)에게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인간의 본래 성향과 사회의 요구가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특히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체계적 음악교육을 강조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의 목소리와 어린이의 목소리가 같지 않으므로 성인 위주의 음악을 어린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음악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화법이 녹아든 가사의 노래를 강요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빼앗는 셈이다. 그래서 그는 가사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만을 내세울 때 오는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음악 자체의 교육적 장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치에서 문자나 악보의 해독을 서둘지 않되,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보는 음악어법의 학습을 권장하였다(Rousseau, 2015, p. 142).

학생의 눈높이를 참작하는 실효적 접근은 전인적 성장을 강조한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 1746-1827)의 음악교육으로 이어진다. 그는 직관에서 개념으로 나아가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존중하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면서 음악이 보편적 품성의 계발로 인간다움의 형성에 이바지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른 나이부터 음악을 배워야 한다고 여겼음에도 음악에 대한 지도법을 그의 처지에서 당장 구체화하기는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다만, 간단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Pestalozzi, 1801, 7. Brief, I).

페스탈로치가 미뤄놓은 이 과제는 음악 현장의 교육자들인 파이프퍼(M. T. Pfeiffer, 1771-1849)와 네겔리(H. G. Nägeli, 1773-1836)에 의해 “페스탈로치의 원리에 의한 노래지도법”으로 수행되었다. 그들은 페스탈로치의 견해에 따라, 음악이 신체적 성장과 연계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최적의 활동이라고 적시하고 있다(Pfeiffer & Nägeli, 1810, p. IX). 그 지도법에 따르면 교사 역시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하고, 어린이들이 항상 밝은 분위기에서 활동하도록 안내해야 한다(Pfeiffer & Nägeli, 1810, p. 1).

루소와 페스탈로치의 견해는 전인교육 차원에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경험 중심의 음악 활동을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래하기의 즐거움을 우선하여 음악적 내용을 차치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즉 수업 활동의 중심에서 음악을 놓칠 때 나타난다. 루소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 나이의 학생에게 적합한 소재로 음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그것이 실제 삶과 창의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음악 활동이 공동체 체험 활동의 범위에 국한되면 고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나 종교적 활동의 하나로 여겨지던 때로 회귀하는 셈이다. 통합적 활동은 사회 속에서 음악이 원래 그러하고 오늘날 대부분 음악 교과서와 그에 따른 음악 수업이 그러하듯이 지도 방법의 한 유형으로 연구되고 수행될 수 있다.

3. 미적 교육의 대두와 응용

1) 미적 교육의 대두

미적 성장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잇는다는 미적 교육의 이상(理想)은 예술 교육의 독립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미적 교육은 용어적으로 쉴러(F. Schiller, 1759-1805)에 의해 촉발된 것이나, 그러한 사고의 시발점은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 1706-1757)의 미학(Aersthetica, 1750)이다. 그는 미학(美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이성 중심의 인간 이해를 넘어서서 감성 역시 인간 인식의 중요한 통로라는 점을 밝혔다. 이 계열의 사고는 이후 칸트(I. Kant, 1724-1804) 및 헤겔(G. W. F. Hegel, 1770-1831)에게서 무 목적적인 것으로 보이는 미적 성향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게 하였다. 이제 감성적 접근은 비이성적이라고 매도되거나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승화에 기여하는 핵심 과정으로 자리 잡는다. 미적 성향의 교육적인 면을 높이 여기는 이러한 접근은 쉴러에 이르러 “인간의 미적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부상하였다(Schiller, 1795).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적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열려 있다. 그러나 이 계열의 사고가 집단을 우선하는 교육에서 인격을 우선하는 교육으로 음악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데 이바지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루소나 페스탈로치의 음악교육도 인간 본성을 중시하는 미적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미적 교육은 듀이의 “미적 경험(esthetic experience)”에서 보듯이 여전히 인간 중심 교육의 중요한 주제이다(Dewey, 1980, pp. 50, 281).

2) 미적 교육의 오용

미적 교육의 의미가 실천적 의미에서 예술적 감성과 연계되어야 함에도 사회 구성원의 결집을 위한 집단적 감성에 치중하다 보면 음악이나 미술 등의 개별 예술 분야가 묻혀 버리는 활동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방향은 한때 독일어권에서 대두되었던 ‘예능적 통합교육(musische Erziehung)’에서 표본적으로 나타난다.

‘예능적 통합교육’이라는 말에서 ‘musisch’는 고대 그리스의 뮤즈(Muse)들이 관장하던 일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무지케(Musiké)로서 낭송(시)과 노래 및 춤을 포괄한다(Ehrenforth, 2005, p. 43).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러한 방식의 예술은 더 이상 구현되기 어렵다. 굳이 오늘날의 장르 구분에 넣어보자면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재현하는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 장르에 가깝다. 그러나 뮤즈들이 그것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업의 형태로 작동하는 현대 오페라와는 그 결이 다르다.

그런데 20세기 전반부에 예술의 고립 및 지나친 기능화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고대 그리스의 무지케처럼 시·음악·춤을 연계시켜 음악과 삶을 통합해 보자는 운동이 제시되었다. 이 과격한 통합 운동은 20세기 초 사회적 청소년 운동과 연계되면서 그룹 활동, 공동체 중시, 민족 문화 촉진 등을 내세웠고 나치에 의해 전체주의식 교육 이념의 하나로 차용되었다(Noll, 1994, p. 201). 제2차 세계 대전 후, 이 경향은 성찰과 변혁의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전인적 통합의 유토피아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초래하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1960년대를 지나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Noll, 1994, p. 202). 이는 명분만 두드러지는 통합체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미적 활동이 보장되는 음악 활동이 미래 역량의 함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결과이다.

이러한 성찰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지닌 다양한 음악 유산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것은 미래 역량의 함양보다 즐거기를 우선하는 틀에 박힌 수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예시한 ‘예능적 통합교육’은 미적 체험의 음악교육에 관한 관심이 약했고, 보여주기식의 음악 활동에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Günther, 1985, p. 109; Khittl, 2010, p. 291). 그래서 이 교육 운동은 본래 이상적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추구하면서 출발했으나, 교육 활동의 전개에서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인격적 음악 향유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IV. ‘즐거운 생활’ 교과와 변천

한국에서 학교 음악교육이 시작된 이래 변함없이 존재했던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는 1980년대에 이르러 조금씩 변화를 겪다가 어느 순간 그 자취를 잃게 된다. 교육과

정 시기별로 보면 제4차 교육과정은 그 발단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적 내용 구분의 틀을 잃었고, 2011 개정 교육과정 이후 실제로 그 존재감을 상실한다. 다음에서는 교과와 성격과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특히 교과와 지향점과 내용 영역의 구분에 주목하면서 교과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1. 교과 연합 형태의 통합 교과

1) 제4차 교육과정: 교과 간의 통합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말에 고시되었고, 이듬해 첫 학기부터 시행되었다. 당시는 군부독재와 민주화 운동이 맞물리면서 갈등과 긴장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을 때이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유화 등 일부 유희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히틀러청소년단(Hitlerjugend)을 연상시키는 청소년단체의 통합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초등학교에 ‘아람단’이 생겼다.

당시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음악 교과와 있었고, 단지 운영에서 미술, 체육 교과와 통합할 것으로 명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교과들의 내용이나 영역의 통합이 아니라 “교과 간의 통합”이었고, 그 명분으로 “교과 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들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1, p. 3). 초등학교 음악 교과와 목표에는 “음악의 체험”, “음악성 계발”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1, 2학년에도 해당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1981, p. 71).

각 학년에 제시된 목표를 보면 공통으로 세 가지 방향의 접근을 하고 있다. 첫째, 기본 능력, 즉 음악 향유를 위한 음악의 기본 요소 및 개념의 학습이다. 둘째, 표현 능력, 즉 노래하고 연주하며 창작하는 활동이다. 셋째, 감상 능력, 즉 음악을 듣는 활동에 대한 안내이다.

이 세 가지 영역마다 다시 하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밝힌다. 그 내용을 보면 음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본 능력의 하위 범주로 소위 음악의 7가지 요소(개념)인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 내용은 1, 2학년 공통이고, 일부에만 조금 심화한 것을 2학년에 넣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 능력

- 리듬: 전체적 리듬 흐름에 따른 신체 반응, $\frac{2}{4}$, $\frac{4}{4}$, $\frac{3}{4}$ 박자의 단순한 리듬 치기, 듣고 구별하기

- 가락: 전체적 가락의 흐름 감지하기, 표현하기, 글자 악보에 의하여 게이름부르기
- 화음: 화성의 울림을 듣고 느끼기
- 형식: 반복되는 가락 듣고 느끼기, {다른 가락 듣고 느끼기 [2학년 추가]}
- 빠르기: 빠른 악곡과 느린 악곡의 특징 분별하며 표현하기, {감지하고 표현하기 [2학년 추가], 일정한 빠르기로 표현하기
- 셈여림: 센소리와 여린 소리 분별하며 표현하기, {셈여림 변화의 특징 느끼고 표현하기 [2학년 추가]}
- 음색: 리듬 악기 음색 구별하기, 가락 악기 음색 구별하기

다음으로 표현 능력의 영역에는 정규 음악 교과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창 분야에서는 바른 자세와 무리 없는 소리, 듣고부르기, 가사의 뜻과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부르기, 제창과 독창이 제시된다. 2학년에서는 돌림노래가 추가된다. 기악 분야에서는 1, 2학년 모두에서 리듬 악기의 주법과 리듬 합주가 안내되고 있다. 창작 분야의 안내는 학년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1학년에서 생활 주변의 여러 소리를 모방하여 표현하며,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한다. 2학년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더해 리듬 모방 놀이를 하며, 악곡의 특징에 따라 합주의 편성을 생각하게 한다. 감상 능력 영역에는 1, 2학년 공통으로 리듬과 가락의 변화, 악곡의 종류와 연주 형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이에 더해 2학년에서는 악기의 음색도 다루도록 한다.

되짚어 보면, 정치적으로 제5공화국 시절이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공감대 형성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때였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음악, 미술, 체육 교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고시되었다. 교과 간의 연관성을 내세웠음에도 이 세 과목이 왜 연관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다. 내용 연계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서 각 교과가 따로 수업을 짤 수밖에 없었다.

2) 제5차 교육과정: 통합 교과의 시작

이 교육과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교과 명칭이 ‘즐거운 생활’로 바뀌었다 (Ministry of Education, 1987, p. 3).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는 명칭에서 사라진다. 운영에서의 통합을 주문하며 시작한 통합 교과가 이제 음악 교과의 이름을 대신하고, 향후 주제 통합과 놀이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음악적 내용까지 들어내기 위한 정지 작업을 진행한 셈이다. ‘즐거운 생활’은 예술 교과가 아니라 놀이 교과이다. 그래도 당시까지는 음악적 내용이 심하게 축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과의 방향이 놀이를 지향하게 됨으로써 음악 교과의 핵심 목표인 음악 체험과 음악성 계발이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 ‘즐거운 생활’의 목표

즐거운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운동 능력을 기르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계발하여 조화로운 인격의 터전을 마련한다.

- 1) 여러 가지 운동의 기초적인 동작을 익혀, 사이좋게 운동하며 건강 생활에 참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
- 2)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3) 서로의 표현 활동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Ministry of Education, 1987, p. 22)

첫째 사항은 체육 교과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음악이나 미술의 내용을 거의 담아내지 못한다. 둘째 사항에서 미적 체험과 표현이 ‘즐거운 활동’을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음악적 역량 함양을 위한 활동이 곧 즐거운 활동과 같을 수는 없다. ‘통합’이라는 방법이 지도할 내용 및 목적을 통제하고 있어서 마치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뀐 모양새이다. 셋째 사항이 안내하는 감상도 교육적 관점에서 합리성이 모자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감상은 이해하며 즐기고 평가하는 포괄적 활동으로서 주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Ju, 2024, p. 220). 그런데 인류의 음악 유산에 대한 접촉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표현 활동을 즐겁게 감상하라고 하면, 장기 자량이나 재롱잔치와 유사해질 수 있다.

‘즐거운 생활’의 등장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음악교육의 입지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내용상으로 큰 손실이 없었던 것은 통합 교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5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신체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영역이 구분되고, 원래의 세 교과 내용을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음악적 사항의 반영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Education, 1987, pp. 22-24).

■ 표현 활동(발체)

- 단순한 리듬에 맞추어 여러 가지 신체 표현하기
- 단순한 가락의 박자와 {리듬 및 [2학년 추가]} 빠르기를 표현하기
- 가사의 뜻을 살려 노래 부르기
- 노래에 맞추어 단순한 리듬 악기로 합주하기
- 여러 가지 소리를 {모방하거나 [1학년]} → {즉흥적으로 표현하거나 [2학년]}, 쉬운 노래를 {개성에 따라 [1학년]} → {자유롭게 [2학년]} 표현하기
- 재미있었던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 연상, 공상, 희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 감상 활동(발체)

- 여러 가지 발표회를 보며 즐기기

- 가락을 듣고 신체적 반응을 하면서 즐기고, 그 특징을 느끼기
- 여러 가지 악기의 음색이나 음성에 관심 가지기

3) 제6차 교육과정: 세 영역의 유지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신체, 표현, 감상의 구분과 원래 교과 중심의 내용 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과의 성격이 더 자세하게 제시된다. 이것은 당시 교육과정이 취한 문서 체제에 따른 것이어서 통합 교과에만 해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격을 구체화하면서 내용 체계에서도 음악적인 것이 상당히 뒤편으로 밀려나고 노작 형태의 놀이 활동이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리듬, 가락, 박자의 표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감상 활동에서도 가락과 음색에 대한 언급이 없다(Ministry of Education, 1992, pp. 21-22).

■ 표현 활동(발체)

- 여러 가지 모양과 소리로 {자유롭게 [2학년 추가]} 나타내기
- 노래 듣고부르기
- {그림 [1학년]} 악보를 보며 노래 부르기
- {간단한 [1학년]} 리듬 합주하기
-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 나타내기
- 상상한 것 나타내기

■ 감상 활동(발체)

- {음악을 듣고 특징 찾아보기 [1학년]} → {리듬과 가락의 특징을 찾아보고 이야기하기 [2학년]}
- 경기장, 음악회, 전시회, 학예회 {관람하기 [1학년]} → {관람하고 이야기하기 [2학년]}

4) 제7차 교육과정: 이해 활동의 강화

제7차 교육과정의 통합 교과는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주제에 의한” 운영을 내세운다(Ministry of Education, 1997, p. 24).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이 별도의 문서(별책 15)로 제공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그런데 ‘즐거운 생활’의 교과 목표에는 음악적 활동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교과 영역도 신체, 표현, 감상의 기존 틀에서 놀이와 표현, 감상, 이해로 재편되었다. 그래서 통합 주제에 의한 생활 경험 쪽으로 교과 운영의 방향을 잡으면서도 실제에서는 음악적 사항이 짜임새 있게 반영된 모습을 보인다(Ministry of Education, 1997, pp. 46-48).

■ 놀이와 표현 활동(발체)

-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한다. [1학년]} → {어울리게 신체 표현을 한다. [2학년]}
- {노래를 듣고 부른다. [1학년]} → {간단한 노래를 보고 부른다. [2학년]}
- {그림 악보를 보며 [1학년]} → {노래에 어울리게 [2학년]} 리듬 합주를 한다.

■ 감상 활동(발체)

- 음악회, 전시회, 학예회 등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아름다운 점, {특징 [2학년 추가]} 등을 찾아본다.

■ 이해 활동(발체)

- 놀이와 표현, 감상을 통하여 리듬, 가락,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의 변화를 이해한다.

2. 주제 방식의 통합 교과

1) 2007 개정 교육과정: 주제별 내용 체계의 시작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과는 교과 연합의 형식을 탈피하고 자체의 내용 구성을 시도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부터 대주제와 활동 주제로 내용을 구분하는 방식이 통합 교과에 나타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2). 이로써 ‘즐거운 생활’은 음악 교과와 거의 관련이 없는 내용 체제를 지닌다. 목표 진술에서도 모든 사항을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로 획일화시켜 버림으로써 영역에 따른 활동의 고유성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놀이와 활동이 마치 지도 내용인 것으로 비친다. 결국 초창기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방법과 내용의 역 현상이 가중된 모습이다.

■ 교과 목표

- 가.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 나.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다.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작품과 생활문화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방법에 치중하다 보니 대주제와 소주제의 음악교육적 내용 연계는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를테면 1학년에서 ‘가족과 친구(대주제) ⇨ 전래 동요 부르기(소주제)’에서 ‘가족과 친구 = 전래 동요’의 조합은 다소 생경하다. 전래 동요를 활용하더라도 가족 노래 부르거나 친구 사귀는 노래 부르기로 공통 사항을 찾아야 한다. 이어서 나타나는 ‘동물과 식물(대주제) ⇨ 동물 음악회 열기(소주제)’는 외형적으로나마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산과 들(대주제) ⇨ 악기 놀이하기, 노래를 이용하여 놀이하기’는 그것이 왜 켜여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음악이 자연이나 그 현상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음악 학습이 그것에 꼭 연동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구분은 계절을 학기 구분처럼 학습 시기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사례에 견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이렇게 짜는 것은 지침 상호간의 유기성을 약화하고 음악적 내용의 조직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적 내용은 상위의 주제들과 거의 관련이 없이 제시된다. 그런데도 양적인 면에서 음악적 사항을 활동 주제 안에 배치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에서는 조망의 편의를 위하여 그 사항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제시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p. 33-40).

■ 1학년

• 놀이 신체 활동(재구성)

- 음악을 들으며/노래 부르며 여러 가지 신체 표현 활동하기
- 셈여림/간단한 장단/리듬에 맞추어/높고 낮은 소리를 들으며 신체로 표현하기
- 음악에 맞추어 연이나 배치럼 움직여 보기/노래를 이용한 놀이하기/음악에 맞추어 홀라후프 놀이하기

■ 표현 활동(재구성)

- 즐거운 마음으로/가락에/리듬에 맞추어/리듬 치며/가락의 높낮이를/리듬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
- 가족이나 친구와/계절과 관련된 전래 동요 부르기/동식물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
- 신체를/주위의 물체를 활용하여 간단한 리듬 놀이하기/리듬 악기 만들기/리듬 합주하기/악기로 표현하기

■ 감상 활동(재구성)

- 동물 음악회 열고 감상하기
- 음악을 들으며/음악을 듣고 느낌을 색으로/선으로 표현하기

■ 2학년

• 놀이 신체 활동(재구성)

- 음악을 들으며 색지로 놀이하기
- 음악을 들으며 율동하기/음악에 맞추어 걷고 달리기
-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리듬과 가락에 맞추어/리듬 또는 가락의 흐름을 신체로 표현하기

■ 표현 활동(재구성)

- 봄/꽃//여름/색/겨울/극놀이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전래 동요 부르기
- 샘여름을 달리하여/악기의 반주에 맞추어/느낌을 표현하고 노래 부르기
- 주변의 소리를/음색/빗소리, 바람 소리, 천둥소리 등을 표현하기/배경 소리 만들기
- 느낌을/높고 낮은 소리와 길고 짧은소리를 악기로 표현하기/악기 연주하기/노래에 맞추어 합주하기

■ 감상 활동

- 여름과 관련된 소리나 음악 감상하기
- 동시로 만든 동요를 부르고 감상하기

2)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적 사향의 퇴조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제 중심의 틀은 더 공고해졌으나 음악교육의 모습은 매우 약해졌다. 활동 주제의 선정에서 음악적 사향이 아예 배제되었으며, 성취 기준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목표에서 “표현 활동” 또는 “기초적인 표현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나(Ministry of Education, 2011, p. 31) 그것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특정되지 않아서 체계적 지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취 기준에 나타난 바를 보면 모든 표현 활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 활동” 등으로 열려 있다. 이제 음악적 내용은 교과서 저자나 현장의 교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볼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바탕으로 출발한 ‘즐거운 생활’이 이들 교과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별도의 교과가 된 셈이다. 이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즐거운 생활’은 더 이상 예술 교과가 아니며 공동생활 교과에 가깝다.

이 기조는 2015 교육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역시 모든 성취 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등으로 개괄되고 있을 뿐(Ministry of Education, 2015)이며, 어떤 내용을 소재로 그리고 어떤 체계로 풀어낼지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음악적 사향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직전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답습한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 당위성의 훼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과가 아예 별도의 교과임을 천명하고 교과 성격을 하나로 묶어 제시한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공통으로 ‘지금-여기-우리 삶’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독자적 위상을 내세운다. ‘바른 생활’ 또는 ‘슬기로운 생

활’에 비하여 ‘즐거운 생활’의 변신이 가장 생경하다. 세 통합 교과 중 ‘바른 생활’이 문제 성찰과 실천을 담당하고, ‘슬기로운 생활’이 지속적 관심과 탐구를 맡음에 따라, ‘즐거운 생활’은 즐기는 과목이 되어버렸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pp. 5, 21, 38). 이것은 음악 교과의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교육에 대한 당위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현재를 즐기는 교과는 있어도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과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즐기기를 배우는 것이 교과라면 음악 학습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마치 음악적 사항으로는, 또는 음악 교과로는 ‘지금-여기-우리 삶’에 대한 탐구와 성찰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없고 그저 즐기기만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취 기준을 보면 그나마 문화 예술을 “향유한다”, “즐긴다”, “체험한다”([2즐02-01, 02, 03])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공교육 수준에서 이런 사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안내하여야 하는지, 특히 이전 및 이후의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의 지침들은 관련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있어서 이전 단계 및 이후 학년의 음악적 사항을 고려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를테면 유치원 과정의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p. 4)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놀이를 하면서 ‘지금-여기-우리 삶’을 즐긴다”로 낮아져 버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즐거운 생활’이 음악적인 사항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은 반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로 구체화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p. 5).

초등학교 3, 4학년 단계와 비교할 때도 전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 초등학교 3, 4학년 군의 음악 교과에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며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4음01-04])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5, 6학년 단계에 “간단한 형태의 연주를 준비하여 생활 속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6음01-04])가 나온다. 공연 활동이 초등학교생의 처지에서 복합적이고 난도가 높으므로 최대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안내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즐거운 생활’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살려 전이나 공연 활동을 한다.”([2즐04-03])고 하면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공연’과 ‘문화 예술’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 2개의 단어 선택이다.

V. 비전 찾기

1. 교과 증발에 대한 성찰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는 한국에서 20세기 초 현대적 초등 교육이 시작할 때부

터 존재한 교과이다. 그 당위성이나 위상이 흔들리거나 사회적으로 교육적 기여를 의심 받은 적이 없다. 음악 교과의 시발지인 서양의 경우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음악 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요원한 시절이었던 1980년대에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교과 간 통합 운영이 시작되었다.

교과 간 통합 운영이 처음 등장할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전실한 음악 교과 교육과정 이 존재하였다. 통합 운영의 명분으로 교과 간의 연관성과 학생 발달 단계의 배려가 제시 되었으나 이후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명이 도입되고 놀이와 즐기기의 교과로 변신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음악적 지도 내용은 마침내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대주제 및 소주제 중심이라는, 일종의 교과서 개발 틀과 유사한 통합 교과 교육과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즐거운 생활’은 현재의 집단적 삶을 즐기는 교과로 규정됨에 따라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 교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한국에서 통합 교과의 출현과 그 변천을 조망해 보면 무엇보다 그 명분과 과정의 단절이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사회화와 인본주의를 잇는 미적 교육 관점의 인간 교육이 갑자기 통합을 명분으로 집단 놀이의 장려로 둔갑했다. 사실은, 음악 교과의 내용이 제거되면서 통합 교과라는 명분도 없어졌다. 통합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음악적 내용이 없어진 상태에서 놀이와 즐기기를 내세우는 것은 교과 통합을 배제하고 즐기기 중심의 놀이 교과를 개설한 것과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장구한 역사를 지닌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는 교과 간 통합에 말려든 후, 주제에 의한 통합, 그다음에는 통합 모태가 되었던 교과로서의 위상 상실, 그리고 신설 교과의 독선적 부각을 거쳐 마침내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은 음악과 미술 및 체육의 통합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의 독립이다. 통합 교과가 ‘활동 중심’이라는 호도의 끈으로 오히려 통합을 버리고 자체의 교과 울타리를 친 것이다.

문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감성 계발의 품성 교육으로 시작하여 사회화의 핵심 방편으로 그리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적 교육으로, 나아가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전인 교육으로 이어진 음악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서 폐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교육의 전통에서 그러한 통합적 접근의 이점이 있었는지 역사적 성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두드러진다.

첫째, 통합적 접근은 음악 중심의 감성 교육이었다. 고대 중국이나 고대 그리스의 사상, 서양의 기독교 사회에서 음악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음악의 교화적 작용을 우선하였다. 특히 페스탈로치에게서 보듯이 음악을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두루 보살피는 교육이 설득력을 지닌다. 통합적 접근을 하더라도 음악이 배제된 상태의 통합이 아니었음을 동서양의 ‘음악’, 즉 악(樂)과 뮤직(music)이라는 단어가 전해준다. 그

러므로 통합을 시도하려면 음악 교과안에서 방법적으로 놀이 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둘째, 음악의 예술적 가치, 무엇보다 개인의 미적 판단력을 배제한 통합적 접근은 비록 그것이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오용되기 쉽다. 통합 교과의 역사적 모델일 수 있는 나치 시대의 '예능적 통합교육'은 히틀러청소년단과 더불어 본질을 벗어난 교육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삶을 놀이 형태로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교육이 과연 역사적 사명과 미래 역량의 함양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2. 역사적 발전의 시사

인류의 교육사에서, 좁혀서 학교 교육의 역사에서 원래부터 교과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선명한 교과 구분의 형태로 영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발달하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로 교과가 생긴 것이다. 교과의 이익,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과 관련자들의 이익을 위해 교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교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과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교육적 이익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이라는 것은 구분한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합할 대상이 없는데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과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대화할 상대를 없애 놓고 대화하자고 발언하는 셈이다.

후세대를 위해 어느 것이 더 나은 처방인지 고민하는 처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적 기여를 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이라는 기존 교과를 허물고 새롭게 통합 활동을 장려하려는 관점과, 음악이 다양한 주제의 통합을 이끄는 교육 소재라는 관점은 실제에서 상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역사적 조망은 이 비전의 제시에 의미 있는 점들을 내놓는다.

첫째, 음악은 인간의 성장과 심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제대로 교육에 접목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문화권이든 음악의 작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의적인 놀이 중심의 활동을 넘어서는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보편적 초등 교육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루소와 페스탈로치의 음악교육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 개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개별 인격체로서의 학생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인이 음악을 매개로 연결되는 지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 그들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 음악교육의 특수성을 잘 드러내었다. 음악 전문가이기

도 했던 루소는 음악적 경험이 다른 활동에 부속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음악적 사항에 집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대적으로 음악적 전문성과 거리가 있었던 페스탈로치는 어린이에게 음악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별도로 주변의 음악교육 전문가들이 그 실제적 사항을 개발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둘째, 음악의 교육적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사회의 변화에 연동되므로 시대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담아내는 예술교육이 요청된다. 이 역사는 긴 자취를 남기고 있다. 플라톤이나 공자의 음악교육 사상에서 교육의 방향이 결국 사회의 통치 방향과 맞물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사회에서 찬송은 기본적 사회 활동이기에 학교 교육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 역시 자연스러웠다. 음악교육의 효용성이 사회 유지의 이익에 종속되는 방식이다. 이제 통치나 종교의 관점을 벗어나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놓을 때도 음악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 분야로 조명되고 있다. 인본주의, 범애주의,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음악은 그 미적 속성을 필두로 전인적 인간 교육에 기여하였다. 특히 미적 교육의 사조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개인의 인격 성장을 전제한 미적 교육은 오늘날의 민주 인권 사회에서도 고상한 삶에 대한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예술적 감성에 주목하는 음악교육은 현상을 즐기게 하는 데 안주하지 말고 미적 감성을 함양시키려는 적극적 활동을 내세워야 한다. 어떤 표현 능력을 기를 것인가의 문제가 배제되고, 놀이 방식으로만 활동할 것이 강요되면 자유와 창조성, 그리고 미적 안목을 아우르는 포괄적 음악교육은 요원해질 수 있다.

셋째, 통합적 접근에 대한 성찰과 혁신의 중심적 역할을 음악 교과가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 교과와 원조처럼 보이는 ‘예능적 통합교육’의 여파를 겪었던 독일어권은 오늘날 음악 교과안에서 통합적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나치 시절의 ‘예능적 통합교육’은 시, 음악, 춤을 연합시킨 것으로서 예술 교육을 우대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운동이 왜곡된 사회 이념에 부역하는 상황을 맞았다. 활동 중심, 편안한 접근 등의 즉각적 실용성을 내세우면서 실제에서는 인간 본연의 고귀한 품성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이 존중받는 통합적 접근을 하더라도 음악 예술의 자율적 가치를 도외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VI. 결론

음악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음악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쓰이고 있는 데서 이미 증명된다.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생활에서 누구도 음악을 제거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비록 음악 향유 방식이나 개별 음악 장르에 대한 호불호가 다르고 음악 활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크게 보면 음악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축복과 같은 존재이다.

21세기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의 단절을 어떻게 이을 것인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해당한다. 아무리 통합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소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빠져 버리면 활동만 남는다. 현재를 즐기는 놀이만 가르치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음악 교과의 목적까지 달성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음악 교과와 관계없이 그러한 활동을 제공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음악적 내용을 제대로 담은 음악 교과를 복원하고 놀이와 즐기는 교수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 교과가 다시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의 예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안의 하나는 본래의 음악 교과를 복원하고 활동 방식에 있어서 최대한 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독일의 최근 교육과정의 구조(Ju, 2017, 2022)와 교과서(*Musikus*, *Kolibri*, *Fidelio*, *Rondo* 등)를 보면 통합적 교과 운영을 강화한 예가 많다. 비록 교육과정은 분리되어 있지만 음악과 미술을 묶어 하나의 교과서를 개발한 예도 있다(MUK). 예술 통합 외에도 음악 교과안에서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형 수업 구성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렇게 재구성된 교과 요목과 교과용 도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정리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교육은 역사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음악 교과가 지닌 본질적 가치를 우선하여야 한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관점의 미적 감성에 기반을 둔 전인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음악적 성장을 통한 창조적 미래 역량의 함양에 이바지한다. 통합이라는 방법이 음악이라는 내용을 대체하도록 방치하면 지금처럼 “놀이를 하면서 ‘지금-여기-우리 삶’을 즐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잡힌다. 놀이를 즐기는 교과와 음악을 학습하는 교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음악 교과와 ‘즐거운 생활’의 격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교육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음악적 성장도 멈추게 한다. 음악 교과가 통합 교과의 명분까지 수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교육을 일궈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nonymous. (2021). *Liji·Yueji*. Trans. Han, H. S. Seoul: Chaeksesang.
- Aristotle. (1885). *The politics*. Trans. Jowett, B.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enius, J. A. (1960). *Pampaedia. Lateinischer Text und deutsche Übersetzung*. Trans.

- Tschizewskij, D. Heidelberg: Quelle & Meyer.
- Confucius. (2020). *Lunyu*. Trans. Choi, S. Y. Seoul: Ilsangisang.
- Dewey, J. (1980). *Art as experience* (1934). New York: Perigee Books.
- Ehrenforth, K. H. (2005). *Geschichte der musikalischen Bildung*. Mainz: Schott.
- Günther, U. (1985). Musikunterricht aus sechs Epochen des 20. Jahrhunderts. Eine Berichtsskizze über Planung, Realisation und Analyse von simulierten Unterrichtsstunden aufgrund von fachgeschichtlichen Quellenstudien. In Bastian, H. G. (Ed.), *Umgang mit Musik. Musikpädagogische Forschung Band 6* (pp. 101-118). Laaber: Laaber-Verlag.
- Jo, J. E. (2013). The discourse on music of the Lunyu. *The Study of Confucianism*, 52, 33-58.
- Ju, D. C. (2003). The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3, 114-142.
- _____ (2019).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cent German curricula for music clas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pp. 223-251.
- _____ (2022). Developing a music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ies - A case analysis study of German music curricula -.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5(1), pp. 53-78.
- _____ (2024). Use of narrative in teaching appreciation of instrumental music. Focusing on Beethoven's symphony "Fat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1), pp. 219-234.
- Kemmelmeyer, K. J. (2012). Geschichte der Musikpädagogik in Deutschland. Retrieved January 31, 2024, from <https://www.prof-kemmelmeyer.de/docs/geschichte-Musikpaedagogik-1945-93-Entstehung-ifmpf-KJK-2012.pdf>
- Khittl, C. (2010). Das Fest als (un)geliebte variable musikpädagogischen Denkens und Handelns. In Eybl, M., Jena, S., & Vejvar, A. (eds.), *Studien zur Musikwissenschaft*, 56 (pp. 287-304). Retrieved January 31, 2024, from <http://www.jstor.org/stable/41472913>
- Kim, Y. O. (2001). *Dohol Lunyu 2*. Seoul: Tongnamu.
- Luther, M. (1909).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A: Weimarer Ausgabe]. 30. Band. Zweite Abteilung*. Weimar: Hermann Böhlau Nachfolger.
- Ministry of Education. (1906). *Enforcement ordinance for elementary school*. The official gazette No. 3539. Seoul: Author.
- _____ (1981).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Ministry No. 442. Supplement 2. Seoul: Author.
- _____ (1987).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Ministry No. 87-9. Seoul: Author.

- _____ (1992).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Ministry No. 1992-16. Seoul: Author.
- _____ (1997). *Curriculum for 'Disciplined life', 'Wise life', 'Enjoyable life', and 'Our first class'*. Ministry No. 1997-15. Supplement 15. Seoul: Author.
- _____ (2007). *Curriculum for 'Our first class', 'Disciplined life', 'Wise life', and 'Enjoyable life'*. Ministry No. 2007-79. Supplement 15. Seoul: Author.
- _____ (2011). *Curriculum for 'Disciplined life', 'Wise life', and 'Enjoyable life'*. Ministry No. 2011-361. Supplement 15. Seoul: Author.
- _____ (2015). *Curriculum for 'Disciplined life', 'Wise life', and 'Enjoyable life'*. Ministry No. 2015-74. Supplement 15. Seoul: Author.
- _____ (2019) *Curriculum for Kindergarten*. Ministry No. 2019-189. Sejong: Author.
- _____ (2022). *Curriculum for 'Disciplined life', 'Wise life', and 'Enjoyable life'*. Ministry No. 2022-35. Supplement 15. Sejong: Author.
- Noll, G. (1994). Musische Bildung. In Helm, S., Schneider, R., & Weber, R. (Eds.), *Neues Lexikon de Musikpädagogik*. Sachteil. Kassel: Gustav Bosse.
- Pestalozzi, H. (1801). Wie Gertrud ihre Kinder lehrt. In Schönebaum, H., & Schreinert, K. (eds.), *Kritische Gesamtausgabe von Pestalozzis Werken* (PSW) 13 (pp. 181-359). Bern und Zürich: Heinrich Gessner. Retrieved February 29, 2024, from <https://www.heinrich-pestalozzi.de/werke/pestalozzi-volltexte-auf-dieser-website/1801-wie-gertrud-ihre-kinder-lehrt>
- Pfeiffer, M. T., & Nägeli, H. G. (1810). *Gesangbildungslehre nach Pestalozzischen Grundsätzen*. Zürich: Nägeli.
- Plato (2000). *The republic*. Trans. Griffith, 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usseau, J. (2015). *Emil oder Über die Erziehung*. Trans. Denhardt, H. Berlin: Hofenberg.
- Schiller, F. (1795). Ue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Schiller, F. (ed.), *Die Horen*, Band 1(1) (pp. 7-48), 2(2) (pp. 51-94), 2(6) (pp. 45-124). Tübingen: Cotta.